

오늘은 용돈버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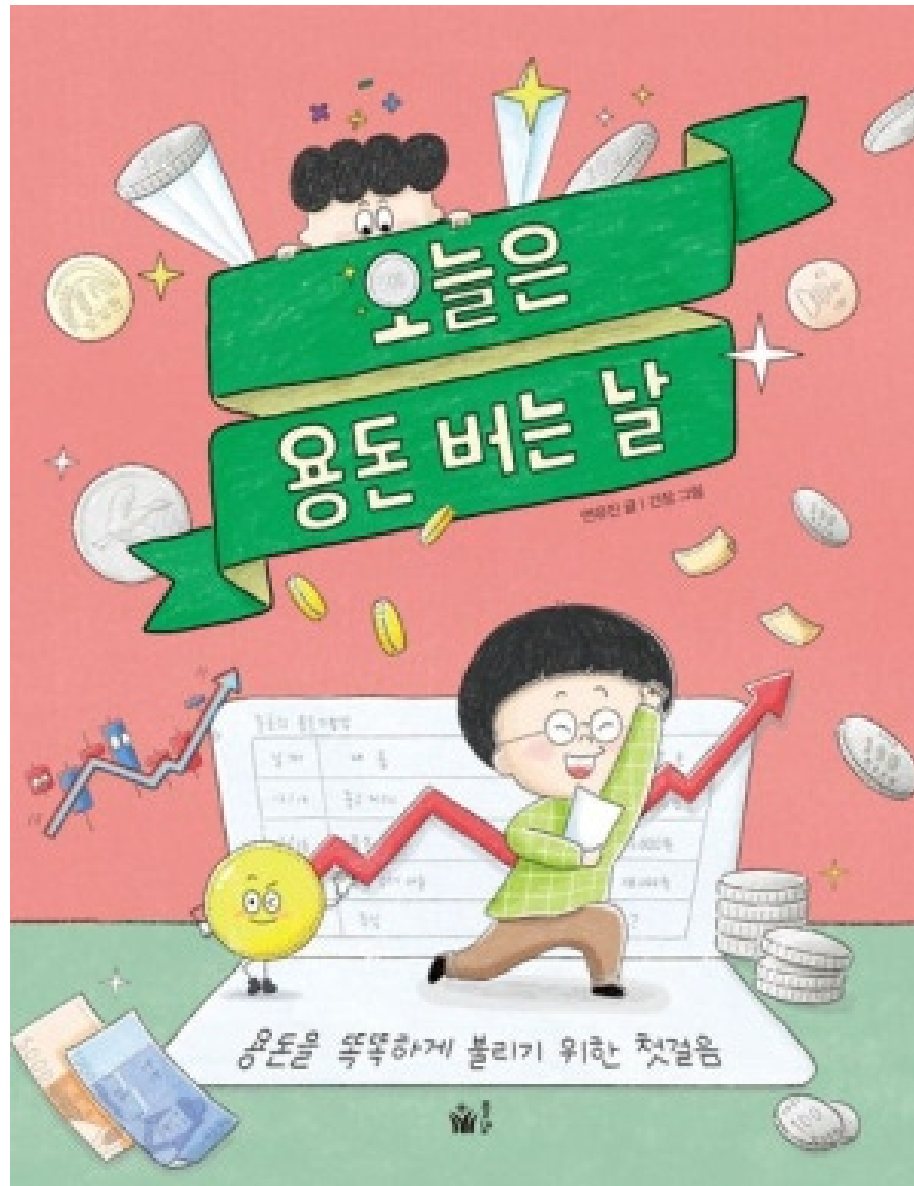
뱅크잇 2기 엠제이도서관모임 4회차 활동후기

2025.11.16 부천별빛마루도서관 세미나실

목차

- 01 오늘의 활동 소개
- 02 책 속 질문 나누기
- 03 마음의 핵심 문장 발표하기
- 04 우리가 알뜰 바자회를 한다면?
- 05 독서마블
- 06 마무리하며

오늘의 활동 소개



이번 4회차 모임은 별빛마루도서관에서 진행되었어요
아이들이 오늘은 용돈버는 날을 읽어왔어요.

주인공 준호는 친구 현우와 "누가 돈을 더 많이 모으냐" 시합을 해요
돈을 안쓰는 것보다 직접 돈을 벌해보면서
소비 뿐 아니라 생산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는 이야기예요

오랜만에 독서마블도 하며 준호처럼 돈을 벌고 관리하는 과정을 상상도 했어요

아이들 스스로 경제 개념을 연결해 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독서활동지 이야기 나누기

01 떠올랐던 질문들 정리해보기

승호 - 왜 돈을 알뜰시장에서 벌었나요?

혜진 - 물건을 중고로 팔면 좋은가요?

서진 - 알뜰시장이 왜 좋아요?

수아 - 서비스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지민 -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은호 - 다경이는 왜 특별한 물건을 팔아야 한다고 했을까?



독서활동지 이야기 나누기

01 떠올랐던 질문들 정리해보기

각자의 질문에 대해 친구들이 대답을 해주다 보니
뜻밖에도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경험도 하고
책 속 생산·소비·가치 결정 개념을 한층 깊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함께 내린 결론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쓰이게 하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될 뿐 아니라 자원을 아끼는 좋은 행동이다!"



독서활동지 이야기 나누기

02 내 마음의 핵심 문장! 한줄로 말해요

지민

알뜰 장터에서 가게를 열어서 번 돈은 저한테 특별한 돈이니까
더 멋진 일에 쓰고 싶어요
나도 용돈을 특별한 곳에 써보고 싶어요

수아

나는 자신있게 알뜰장터 참가신청을 마치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
나도 한번 친구들과 알뜰 장터를 해보고 싶기 때문이다

독서활동지 이야기 나누기

02 내 마음의 핵심 문장! 한줄로 말해요

이유

100만원이었던 총평가 금액이 98만원으로 줄어들었어
나도 포켓몬뱅에 주식투자했는데 숫자가 줄은적이 있어

혜진

다른 가게랑 다르게 수제 쿠키를 나눠준다면 손님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거야
그런 생각을 해 낸 다경이가 대단해보였어

독서활동지 이야기 나누기

02 내 마음의 핵심 문장! 한줄로 말해요

서진

과일 살래요

나도 과일을 좋아하니까

승호

다경이를 설득하고 '준호네 가게'를 손님들로 북적이게 할 비장의 무기를

꼭 생각해내겠어

그렇게 활활타오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말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왔어

독서활동지 이야기 나누기

02 내 마음의 핵심 문장! 한줄로 말해요

아이들은 《오늘은 용돈 버는 날》을 읽고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을 한 줄씩 골라 발표했어요.

각 문장을 고른 이유에서
아이들만의 시각과 감정이 잘 드러났어요.



우리가 알뜰바자회를 한다면?



책 속 준호처럼

"우리가 알뜰바자회를 한다면 무엇을 팔 수 있을까?"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

직접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들

나만의 특별한 서비스

손님을 끌기 위한 아이디어

아이들은 "생산자"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서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을 상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아이들



활동을 마무리하며 느낀점

지민

뱅크잇 독서모임을 하며 나도 용돈을 잘 모으고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가 주식을 잘 성공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수아

돈을 벌기 위해 나도 알뜰시장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뱅크잇으로 4권의 책을 읽으면서 돈을 아끼는 것 뿐만 아니라 잘 쓰는 법, 버는 방법을 배운거같아 좋다

은호

오랜만에 독서마블을 해서 즐거웠다. 1등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준호가 주식을 한 것처럼 나도 주식을 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느낀점

서진

언니 오빠들과 하는데 처음엔 책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점점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독서마블을 1등 해서 기분이 좋았다. 나도 다경이처럼 똑똑한 아이가 되어야겠다

승호

나는 왜 돈에 관한 이야기들만 읽는건지 이해가 안되었었는데 다 읽고 나니
돈을 관리하려면 용돈기입장을 잘 써야한다. 앞으로 배먹지 않고 써야겠다

혜진

원래 한달에 한번 친구들을 만나 독서모임을 했는데 요즘 자주 만나서 좋았다.
돈을 아껴쓰고, 잘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엠제이 도서모임

'오늘은 용돈 버는 날'

대형 4
준호 6
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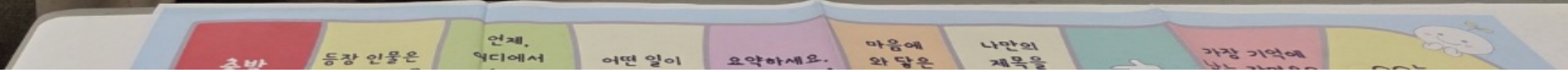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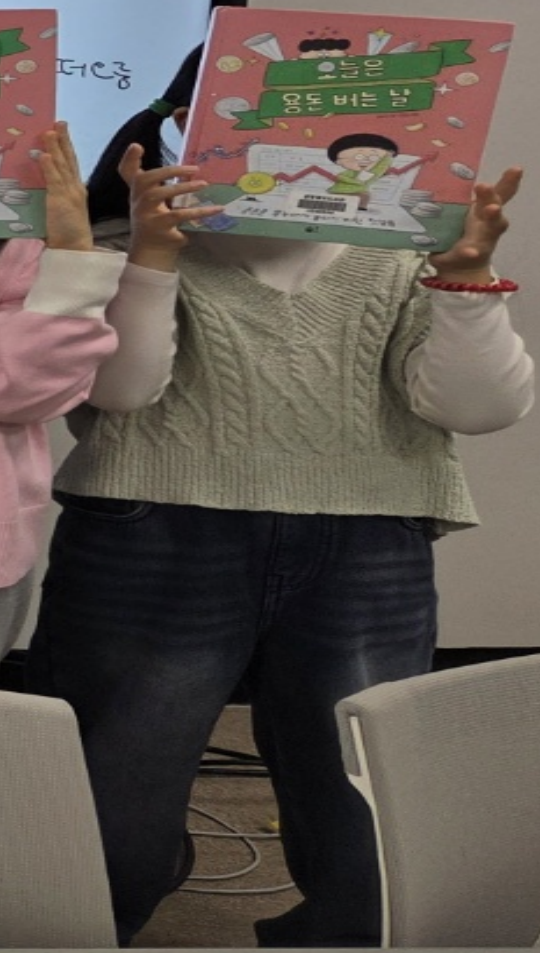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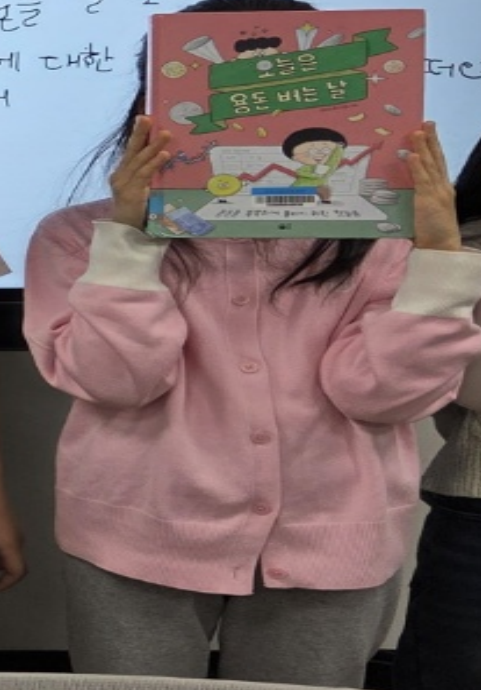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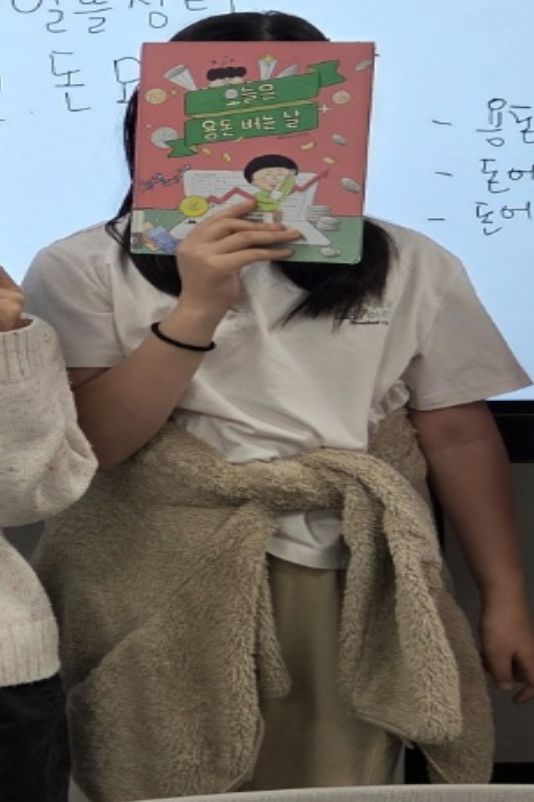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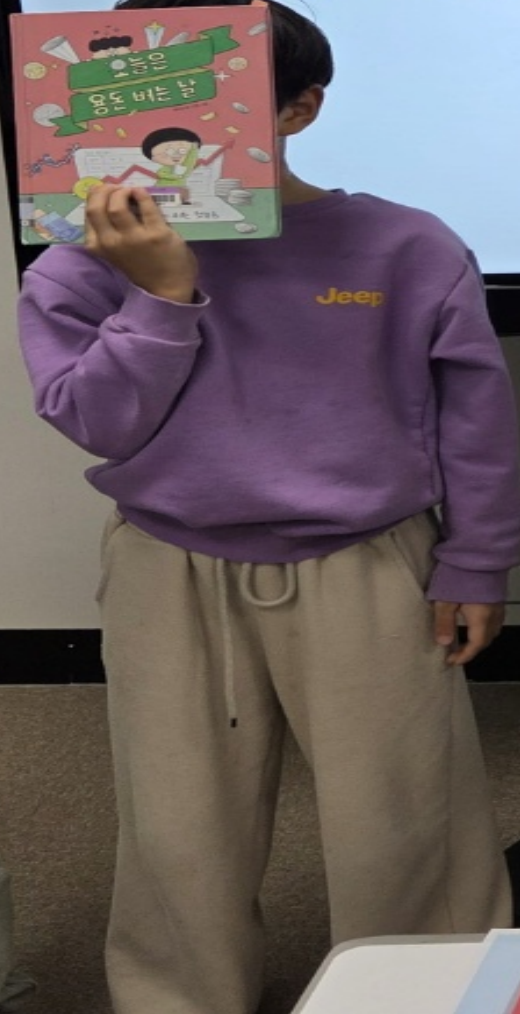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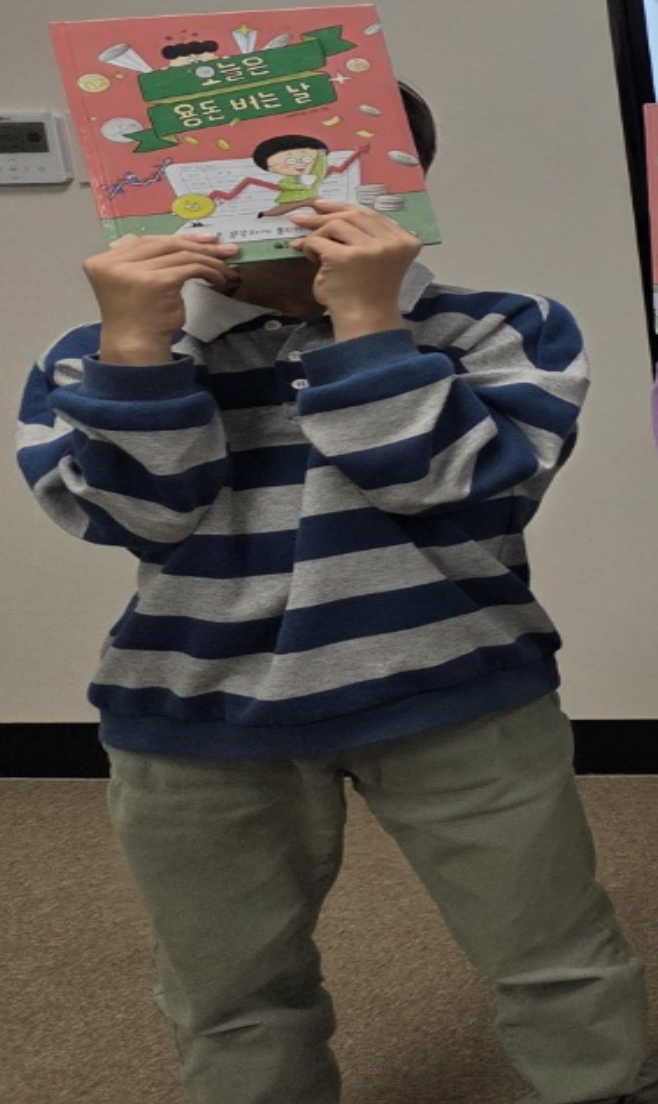
○○ = 준호
☆☆ = 대형

→ 상황 1. 알뜰장터
→ 상황 2. 돈 모으기 시합

야미리 거품청 300원
영 2주 용인청 1500원
원자교과서 20000원
전자교과서 5000원
우지개편청 2000원
강남 5000원
포인 2000원
1000원

알뜰장터 가. 강남 2000원
돈 모으기 시합 T. 강남 5000원
증정품의 마법. 강남 2000원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 용돈을 잘 모아라.
- 돈에 대한
- 돈어



뱅크잇 2기 4회차를 진행하며

안녕하세요. 도서모임을 진행한 유다연입니다. 이번까지 총 네 차례의 모임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은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돈의 가치와 흐름을 직접 체험하며 이해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4회차에 다른 오늘은 용돈 버는 날을 통해 아이들이 소비 중심의 사고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생산의 의미와 돈을 벌기 위한 노력, 그리고 투자라는 개념까지 자연스럽게 익히기 되었습니다.

준호와 현우의 용돈 대결을 보며 '돈을 아끼는 것만큼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알뜰바자회처럼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이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서마블 활동을 하며 등장인물의 선택을 같이 고민하고 만약 내가 이 상황에 있었다면 경제적으로 판단하고 선택의 중요성까지 생각해보는 깊이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네번의 모임을 통해 아이들이 얻은 가장 큰 배움은 내 삶과 연결된 실전적인 사고 방식이었길 바라봅니다. 좋은 체험 기회를 준 뱅크잇에게 감사하며 엠제이도서모임 후기를 마칩니다.